

제1강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1. 여정의 시작 ('구원 역사' 시작)

- 1) 인류와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담의 선악과,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등 창세기 1-11장까지에서 나타난 심판과 멸망으로 치달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창세기 12장을 시작.
- 2) 아브라함의 부르심: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1-3
- 3)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뽑아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의 탄생

2. 아브라함의 여정 요약

장소	성경	아브라함의 여정
하란	창세기 12:1-3	아브라함을 부르심
세겜	창12:4-7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심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제단 쌓음(창12:7)
벧엘	창12:8 창12:10-13 창13:1-4 창13:6-12	단을 쌓고 여호와와의 이름을 부름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 사라의 아내 됨을 부인함 주의 이름을 부름 롯과 헤어짐
헤브론	창13:18 창14:14-16 창14:16-20 창15:1-21 창16:1-16 창17:1-27 창18:1-15 창18:16-33 창19:1-38	롯과 헤어져 헤브론으로 감 호바에서 롯을 구하고 재물과 사람들을 구함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침 자손에 대한 언약 확인 이스마엘의 출생 이름을 바꾸어 주심, 이삭의 탄생을 예언, 할례 이삭의 탄생의 재확인 소돔성에 대한 아브라함의 중보 소돔성의 멸망과 롯의 구출
그랄	창20:1-2	사라의 아내 됨을 부인함
브엘세바	창21:1-3 창21:14-16 창21:29-32 창22:1-14	이삭의 탄생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내쫓김 아비멜레과 더불어 맹세함 이삭을 제물로 바침
헤브론	창23:2 창25:7-8	사라의 죽음 아브라함의 죽음

3. 주요 사건

1)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

① 사라를 동생으로 속임

- 기근으로 이집트로 피신 후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 사라를 동생이라고 함, 사라를 아내로 데려간 바로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심. (창세기 12:10-24)
-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 사라를 아내로 데려간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직접 말씀하심. (창세기 20: 1-18)

② 이스마엘 출생

- 사라의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남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에 따른 자구책 (창세기 16:1-16) → 창세기 17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말하고 있음. 약 13년 동안의 공백...

③ 사라의 죽음 이후 후처의 아들들

- 후처 그두라를 맞이하여, 욱산, 므단, 미다안, 이스박, 수아 5명의 아들을 낳음. 아브라함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주어 동쪽 땅으로 보냄 (창세기 25:1-8)

2) 조카 '롯'

① 롯의 구출과 멜기세덱

- 아브라함과 함께 여정에 동행한 조카 '롯', 아브라함과 헤어져 소돔 지역에 정착, 가나안 지역의 왕들의 전쟁에 휩싸여 포로가 됨. 아브라함이 자신이 키운 318명 장정들을 이끌고 롯을 구함. 승전 후 돌아오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고, 십일조를 드림. (창세기 14:1-24)

② 소돔성에 대한 중보

-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방문한 하나님께서 소돔성 심판에 대해 이야기 하실 때, 의인 10명까지 줄여가며 중보함. 그러나 그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성은 멸망하고,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음.

3) 이스라엘 민족 탄생에 대한 언약

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언약 예식

- 롯 구출 전쟁 (14장) 이후, 주변에 수많은 적들의 위협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자손에 대한 언약을 확인 시켜 주셨음. 아브라함은 직접적인 증표를 원했고, 고대 근동 지방의 동맹 의식인 고기를 둘로 갈라서 기다리면서, 어둠 속에 깊이 잠들었을 때에 연기 나는 불빛이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 가심. (창세기 15:1-21) →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며, 이 계약에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실 것임!!

- 이집트 (애굽) 이주와 출애굽에 대해 이야기 해주심. →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사백 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창세기 15:13-14)

② 약속의 자손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 롯과 헤어진 이후에 약속을 확인. (창세기 13:14-18)
- 99세에 이름을 바꾸어 주심: 아브람 (존귀한 아비) →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사래 (왕비) → 사라 (열국의 어머니) (창세기 17:1-8, 15-16)
- 할례를 행함. (창세기 17:9-14)
-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나그네로 방문하셨을 때, 소돔성 심판에 대한 이야기 전에 이삭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심. (창세기 18:1-15)

4) 이삭의 탄생과 믿음의 시험

① 100세에 이삭의 탄생

- 아이를 수태 할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남. 이삭은 완전히 “은혜”로 주신 아들, 아브라함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창세기 21:1-7) →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한 은혜!!
- 강성해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창세기 21:22-34)

② 모리아 땅에서 제물로 바쳐진 이삭 (믿음의 클라이막스)

-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받치라고 명령하심과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화 이레’) 솟양을 번제로 드림. (창세기 22:1-14) →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 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심.
- 이 사건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역사의 예표.

4.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순종과 훈련

- ① 75세에 하란 땅에서의 부르심에 따라감.
- ②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 → 인간적으로 불가능 한 상황이었을 때에도..
- ③ 약속의 아들을 주님께 다시 제물로 바침!!
- ④ 75세 여정을 시작한 이후 약 40년 이상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심.
 - Purpose (인생의 목적), Possession or property (재물), People (인간관계) → 이 모든 측면에서 훈련 받음.
 -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우리들도 훈련 시키신다!!

2) 신약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 ①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시다. 로마서 4:1-3
- ②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백 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로마서 4:17-20
- ③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8-12

가나인에서의 아브라함의 생애 (창12:5~20)

